

## 제 40 호 시험 점수 주는 방법

시험지를 채점할 때 흔히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1) 틀린 곳에다 X 표를 찍 곳고 ?2, ?5 점 등을 표시하고, 합산된 점수를 만점에서 빼서 최종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 (2) 맞은 곳에다 +2, +5 점 등을 표시하고, 합산된 점수가 최종 점수가 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최종 점수는 같으니 그게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듯이 두 방법은 심리적 차원에서 다르게 작용합니다. 마이너스 점수로 ‘까 내려가는’ 첫번째 방법은 비판적이고 ‘벌’의 개념이 지배합니다. 모자라거나 틀린 점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야단 맞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이 시험지를 되돌려 받고 점수를 볼 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반항이고, 곧 불쾌와 분노로 이어집니다. “@#\*&%! 왜 5점씩이나 감점이야! 내가 뭘 잘 못 했다고...” 학생들 눈에는 틀린 점만을 날날이 꼬집어 내는 교수님이 너무 간간하게 보이거나 쩌쩌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마이너스 점수로 채점할 때에 교수님은 시험 답안지 어디가 틀렸는가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 반면, 플러스 점수로 ‘쌓아 올라가는’ 두번째 방법은 건설적이며 ‘상’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된 점이 강조되고, 옳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은 학생은 흐뭇함을 느낄 것이며, 5점 맞은 학생은 순간적으로 실망스러울 것이지만 불쾌한 감정으로 치닫지는 않습니다. “왜 5점 밖에 안 줬을까?”하고 살펴보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학생이 무엇을 잘 했는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비록 학생이 세세한 점에서 약간 틀렸더라도 기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좀 더 후한 점수를 주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단 맞고 크는 어린이는 소심해지고, 칭찬 받고 크는 어린이는 자신감이 크다.” 다 큰 대학생들한테도 다분히 적용되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시험은 잘, 잘못을 가려내고 학생들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줘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웃으면서 하는 것과 쩡그리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플러스 점수나 마이너스 점수나 채점하기에 걸리는 시간은 똑 같고 학생들에게 도움되기는 때 한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듯이 이왕이면 플러스 점수로 표시하는 방법을 써보시면 어떨까요.